

안세영 “세계선수권 우승은 시작...내 꿈은 그랜드슬램”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에게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 출신 ‘셔틀콕 여왕’
한국 배드민턴 새 역사 쓰고 귀국
“올림픽·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한 번씩 우승하고 싶어요”**

한국 배드민턴 선수 최초로 세계개인선수권대회 단식 종목을 제패한 안세영(21·삼성생명)은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의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라며 곧장 정복할 다음 계단을 바라봤다.

안세영은 덴마크에서 열린 2023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세계랭킹 1위에 오를 땐 처음으로 출전하는 대회라 부담감이 컸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1위라는 자신감으로 잘 풀어나간 것 같다”고 자평했다.

안세영은 “천위페이는 제가 워낙 까다로웠던 선수였지만, 원하는 플레이를 자신 있게 하면서 수월하게 풀어나간 것 같다”고 자랑했다.

또 “오쿠하라는 처음 맞붙어보는 선수라 긴장을 많이 해서 빨리 푸는 게 관건일 것 같아 그 부분에 집중했다. 감독님이 제가 자주 밀어서 수비적으로 시작하는 걸 지적하셔서 빨리 파악하고 실행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시상식 이후 영어로 소감을 밝히기도 했던 그는 “영어 선생님께서 자신 있게 던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봤다. 제가 배운 건 바로 써먹어야 하는 스타일”이라며 미소 지었다.

안세영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을 ‘그

랜드슬램’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그중 하나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에 올라 행복하고 스스로 뿌듯하다”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아시아선수권대회 모두 다 한 번씩 해보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역시 그의 활약이 주목되는 대회다.

“아시안게임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라고 밝힌 안세영은 “욕심을 내면 잘 안될 때가 많더라. 한 경기씩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거다.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렵겠지만 잘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난 아시아 선수들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잠재적인 메달 경쟁자들이다.

안세영은 “상대에게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생각을 못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연습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대회든 선수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니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결승 진출이나 메달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데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도 그는 “선수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이겨내면 뿌듯한 성과가 되는 거니까, 잘 이겨내 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우상혁, 취리히서 탬베리·바르심과 재대결

9월 1일 다이아몬드리그서
5위 안에 들면 파이널 진출

우상혁(27·용인시청)이 한국 육상 첫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을 위해 다시 도약한다.

우상혁은 2023 세계육상선수권에서 6위(2m 29)에 그친 아쉬움을 딛고 한국시간으로 9월 1일 오전 1시 48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경기에 출전한다.

조직위원회는 29일 출전자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남자 높이뛰기에는 우상혁과 2023 세계선수권 챔피언 장마르코 탬베리(31·이탈리아), 3위 루타즈 예사 바르심(32·카타르), 4위 루이스 엔리케 사야스(26·쿠바) 등 10명이 출전한다.

이번 취리히 다이아몬드리그는 2023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대회 중 남자 높이뛰기 경기를 편성한 마지막 대회다.

다이아몬드리그는 각 대회 1~8위에게 차례로 8~1점을 준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다이아몬드리그 총점 상위 6명이 파이널에 진출한다.

올해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은 현지시간으로 9월 16~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다.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 14점으로 현재 5위인 우상혁은 취리히 대회에서 승점 4(5위)를 추가하면 자격으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 자격을 얻는다.

6위 안드리 프로첸코(35·우크라이나)가 취리히 대회에 불참하면서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 10점을 얻은 탬베리, 브랜던 스타크(29·호주), 토비아스 포티에(28·독일)의 추격만 뿌리치면 파이널 진출권을 얻을 수 있다.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2위에 오른 주브헤리슨(24·미국)은 다이아몬드리그 포인트 24점으로 이미 파이널 진출을 확정해 이번 취리히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지난해 우상혁은 다이아몬드리그 랭킹 포인트 총 16점으로 7위에 자리해, 17점으로 6위에 오른 프로첸코에게 1점 차로 밀려 파이널 진출권을 놓



우상혁

쳤다.

2022 도하 대회 우승(8점), 모나코 대회 2위(7점)로 선전하고도 8월 22일 로잔 대회에서 컨디션 난조로 8위(1점)에 그친 탓이었다.

우상혁은 지난 23일 세계선수권을 치른 뒤 “오늘의 아쉬움을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올 시즌 남은 일정도 있다. 다시 파이팅하겠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놓친 터라, 한국 육상 최초의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에 대한 의욕은 더 컸다.

/연합뉴스

U-18 세계청소년야구 31일 개막...한국 우승 도전

9월 1일 푸에르토리코와 첫 경기

18세 이하(U-18)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31일 대만 타이베이와 타이중에서 개막해 11일간 열전을 치른다.

이영복 감독(충암고)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30일 출국해 31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참가한 12개 나라는 두 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우리나라는 대만, 호주,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체코와 A조에서 경쟁한다. 미국, 일본, 베네수엘라, 파나마, 네덜란드, 스페인은 B조에서 격돌한다.

각 조 상위 3개 나라가 슈퍼 라운드에 진출하고, 조별리그와 슈퍼 라운드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우리나라는 1981년 1회 대회 우승국으로 1994년, 2000년, 2006년, 2008년까지 총 5차례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1일 모여 강화 훈련을 거쳐 조직력을 가다듬었고, 한일장전대, 원광대와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29일 광주야구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6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비로 취소돼 전광판에 우천취소 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취소된 이 경기는 나중에 다시 편성된다. /연합뉴스

雨...雨... KIA 우천 연기 19경기

잔여 경기 일정 발표된 날 ‘호랑이 군단’의 잔여 경기가 추가됐다.

KBO는 29일 “올 시즌 2연전이 폐지되고 3연전 체제가 되면서 미편성된 50경기와 우천 순연 경기 등을 포함한 66경기 등 총 116경기를 10월 10일까지 편성했다”며 2023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온 뒤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NC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날 프로야구 5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됐다.

이와 함께 잔여경기는 121경기로 늘었고, 정규시즌 최종일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KBO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경기가 우천 등으로 취소될 경우 우선적으로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로 편성하기로 했다. 예비일이 없을 경우에는 9월 12일 이후 동일 대진이 있는 경기는 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를 진행한다. 9월 12일 이후 동일 대진이 없는 경기는 추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취소된 KIA와 NC 경기는 10월 10일 이후 편성될 예정이다.

일단 이번 시즌을 끝으로 광주 NC전 일정도 마무리 되기 때문에 더블헤더 편성을 할 수 없다.

가장 많은 경기가 남은 KIA가 유일하게 경기가 없는 9월 30일에는 NC-삼성전이 잡히면서 결국 10월 10일 이후 두 팀의 최종전을 잡아야 한다.

KIA 입장에서는 최종일이 문제가 아니다. 29일까지 키움의 119경기를 치렀지만 KIA는

NC와 홈 경기 또 비로 취소
104경기 소화 잔여경기 최다
더블헤더에 추석연휴도 강행군
아시안게임에 선수 3명 보내
최대 9연전 잔인한 가을 예고

가장 적은 104경기를 끝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는 9월 9일 광주 LG전, 9월 27일 창원 NC전, 10월 4일 수원 KT전까지 세 차례 더블헤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또 원래 휴식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경기가 없는 날은 토요일인 10월 7일 단 하루 밖에 없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KIA는 강행군을 펼쳐야 한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 NC와의 창원 경기가 끝난 뒤 KIA는 키움과의 원정경기를 위해 고척으로 올라가야 한다. 9월 29일 키움전 이후에는 문학으로 이동해 30·31일 SSG를 상대한 뒤 광주로 내려온다. 우천 등으로 SSG와의 2연전이 취소될 경우에는 예비 편성일인 2일 월요일 경기까지 소화한 뒤 광주에서 3일부터 KT와 더블헤더 포함 4경기를 치러야 한다.

선발진의 부상 악재 속 잔여 경기 일정을 받은 KIA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시즌 마지막까지 매일 같이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된 산체스가 재

활에만 3주 기량이 필요하다. 또 이의리, 최지민, 최원준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한다. 아시안게임 야구 일정은 10월 1일 시작되고, 금메달 목표를 위한 마지막 결승전은 10월 7일 진행된다. 세 명의 국가대표 없이 시즌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다.

29일 김건국을 대체 선발로 낙점했던 KIA는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30일 선발로 파노니를 예고했다.

이어 산체스의 순서가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대체 선발을 준비해야 한다. 황동하가 산체스 대체 선발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김건국, 김재영과 함께 퓨처스리그에서 콜업을 기다리는 김유신 등으로 KIA는 잔인한 가을을 보내야 한다.

한편 더블헤더 1차전 시간은 평일 오후 3시, 토요일-공휴일은 2시다. 2차전은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일-공휴일에는 오후 5시에 시작한다.

1차전이 취소되거나 일찍 종료될 경우 2차전은 기존 경기 예정시간에 진행된다. 단 1차전이 평일 기준 오후 6시, 토·일-공휴일 기준 오후 4시 30분 이후에 끝나면, 종료 30분 후에 2차전이 시작된다.

예비일 및 더블헤더 편성 시 한 팀의 연전은 최대 9연전까지만 진행된다.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시즌 시리즈와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이나 포스트 시즌에 경기가 치러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